

“옛 경찰청 ‘5·18 당시’ 원형복원 하고 전시된 콘텐츠 다른 공간으로 옮기자”



윤장현 광주시장이 26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당위성과 추진 경과를 도중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왼쪽에서 두번째)에게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당대표 ‘올드보이의 귀환’ 최고위원은 ‘마이너 리그’

위기 국면 타개 재도약 계기 만들지 미지수

뉴/스/초/점

국민의당 전대 한달 앞으로

국민의당은 26일 현행보다 최고위원회 인원을 줄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으로 8·27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결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제보 조작 사태로 인한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회 제안을 과감히 수용,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고 최고위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전대에서 당 대표 선거와 별도로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중 2명은 전체 일당원 투표를 받는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는 대표, 원내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전대에서 당원들은 총 4표(당 대표·최고위원·여성위원장·청년위원장)를 행사하게 된다. 전준위가 이날 마련한 전대 규칙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당 내외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전당대회의 프레임이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잡히면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인사는 광주 전정배 의원과 전북의 정동영 의원 정도다. 중진으로서의 역량은 분명하지만, 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상징성 측면에서는 다소 약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태 등과는 일정 부분 거리가 있는 손학규 전 의원과 김한길 전 의원의 출마론도 거론하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최고위원 선거도 흥행을 일으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심의 주목을 불러만한 후보자가 없는 데다 대표 경선과는 따로 치러지는 ‘마이너 리그’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당의 위기 국면에서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의 근간이 되어 할 초·재선 의원들은 당의 위기 국면에서 단 한 번의 모임도 갖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패기도 없는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여기에 중진들도 당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나를 밟고 가라’는 결연한 헌신의 모습보다는 정치적 실리를 저울질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국민의당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이 스스로의 동력으로 재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로서, 여권의 ‘햇볕질’이 없다면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기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옛 도청 복원 급물살

조건 없는 복원 주장 넘어서 기존 콘텐츠 활용 대안 제시 도중환 문화장관 긍정 답변

도중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옛 전남도청 건물 훼손 상황을 직접 둘러보겠다”고 밝힘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 복원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주무부처 장관이 광주시의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날 광주시가 옛 경찰청에 전시됐던 콘텐츠를 이전할 수 있도록 대체 공간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동안 ‘조건 없는 복원’을 주장한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전당이 예산을 들여 기존에 마련한 전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광주시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옛 경찰청 전시 콘텐츠를 이전할 수 있는 공간과 예산, 문제점 등을 함께 문제부에 전달했다.

광주시의 건의서에 따르면 현 경찰청 전시 콘텐츠를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은 문화창조원 복합관, 상무관 뒤 신축 공간, 전일빌딩 등이다. 옛 경찰청은 1980년대 환경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대신, 현재 전시된 각종 콘텐츠를 다른 공간으로 옮기자는 제안이다.

우선, 현재 옛 경찰청(2291㎡)에 조성된 전시물을 문화창조원 복합관으로 옮기는 안이 제시됐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171억원이 들어가고 문화전당과의 시너지 효과

■ 옛 경찰청 전시 콘텐츠 이전할 경우 가능공간 검토안

구분	현재	문화창조원 복합관	신축(상무관 뒤)	전일빌딩
시설 현황	총연면적: 2,291㎡ -경찰청 본관 -전시실 1,902㎡ -경찰청 민원실 -전시실 389㎡	총연면적: 26,145㎡ ※아시아문화전당도시 백서 발취	총연면적: 4,050㎡ -상무관 뒤편에 신축 -가능면적 1,350㎡	총연면적: 22,470㎡
소요 사업비	총사업비: 134억원 -리모델링: 87 -콘텐츠 설치: 47	총사업비: 171억원 -리모델링: 87 -콘텐츠 철거: 37 -콘텐츠 설치: 47	총사업비: 158억원 -건물신축: 74 -콘텐츠 철거: 37 -콘텐츠 설치: 47 ※2017년 표준건축비: 1,812천원/㎡	총사업비: 171억원 -건물신축: 87 -콘텐츠 철거: 37 -콘텐츠 설치: 47
장점		기존 콘텐츠 활용 가능, 문화전당 활성화와 연계 추진 가능	기존 콘텐츠 100% 활용 가능 문화전당 활성화와 연계추진 가능	기존 콘텐츠 활용 가능
단점 (문제점)		기존 경찰청 콘텐츠 활용 가능여부 판단 필요, 지하공간 설치에 따른 전시물 효율성 반감	건물신축에 따른 5월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 합의 필요, 건물신축을 위한 사전조사(지하공간 등 확인) 필요, 80년 5월 당시의 공간에서 이전으로 전시물 효율성 반감	전일빌딩 리모델링 추진 방침이 결정된 사항으로, 중앙정부 사업 변경 및 협의 필요(문체·기재부), 문화전당 활성화와 연계 가능여부와 관련기관, 시민사회의 합의 필요

가 기대되지만 지하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또 상무관 뒤에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안도 건의됐다. 총 면적 4050㎡에 3층 건물을 신축해 기존 전시물을 옮기는 방안이며 필요한 예산은 158억원이다.

헬기 기종 소사가 밝혀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일빌딩으로 옛 경찰청 내 전시물을 옮기는 방안도 건의됐다. 171억원을 들여 전일빌딩을 리모델링 한 뒤 전시물을 옮기는 방안이다.

광주시는 또 도청본관, 별관, 회의실(민원실), 경찰청 본관, 경찰청 민원실, 상무관의 원형을 복원해 1980년 5월 상황을 재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5·18 당시 시민군의 주요 활동 거점이었던 방송실, 상황실, 대변인실, 회의 공간, 식사 장소, 무기고, 희생자 수습장소 등을 만들자는 것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191) 여름

폭염과 폭우가 교대하면서 무더운 여름이 절정이다. 나무 아래 쏟아지는 때미소리가 여름날 소나기 휘몰아치는 음향처럼 들리는 것도 그만큼 이 여름이 뜨겁기 때문일 것이다.

문득 옛 선인들이 누렸던 피서법 중의 하나인 탁족이 떠오른다. 산간 계곡의 물에 발을 담그면서 더위도 씻고 정신수양을 하기도 했던 탁족은 문사들과 화가들에게 좋은 예술적 소재가 되기도 했다.

시원한 바람에 실려온 연꽃향기

다. 한국화가 목은 오견규(1947~)의 작품 ‘애련도(愛蓮圖)’(2017년 작)를 처음 마주한 순간 초록 우산 같은 연잎과 물오른 가지들과 아름다운 백련과 홍련이 이루는 조화가 너무나도 시원해서 찌는 무더위를 저만치 물러나게 하는 것 같았다. 연꽃 방죽가에 앉아있는 정자의 기둥을 물에 담귀 탁족의 의미를 담은 것도 감각적으로 우리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해 준다.

목은은 “한 여름 소나기라도 한 줄금치는 날이면 연꽃을 사랑해서 글을 썼던 주무숙의 ‘애련설(愛蓮說)’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연꽃 방죽가를 서성인다”면서

“그동안 보아온 연꽃과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향기를 기억하며 생각으로 그려냈다”고 들려준다.

주자에 의해 송학의 시조자로 받들어진 중국 북송 때의 유학자였던 무숙 주돈이(1017~1073)는 연꽃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담은 ‘애련설’을 남겼다. 목은은 ‘애련설’ 중에서도 “연꽃은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잔물결에 깨끗이 씻겨도 요염하지 않으며, 줄기 속은 비어있으나 겉은 곧아서 덩굴이나 가지를 뺏어내지 않는다”는 대목을 마음에 새기고 배우기 위해 화폭에 담았다고 한다.

서양의 풍경화가 인간의 이성으로 자



오견규 작 ‘애련도’

연을 분석하여 바라본 그림이라면, 우리의 산수화는 자연의 이치에 감응하고 그 속에 동참하려는 의식을 담은 그림이어서인지 이 한 점의 그림이 우리 마음 속에 풍성한 연지(蓮池)를 만들어준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분양 전환 아파트 24/35 PY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